



추석명절 감사예배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79장 ----- 다같이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2.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숨씨 노래하도다
3.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4.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 기 도 ----- 결실을 감사하며 ----- 말은이

▶ 성경말씀 ----- 신명기 8:6-10 ----- 말은이

6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라 10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 설 교 ----- 복을 누리는 자의 조건 ----- 말은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꽃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모인 신답의 교우들과 모든 일가 친인척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은 골짜기나 산지를 지나서 시내와 분천에서 샘이 흐르고 모든 과목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디로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과 와 같이 부족할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석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과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가정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노래를 뜻합니다. 세상의 음악이나 노래는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찬송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약 200회 정도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사용된 문맥을 보면 한결같이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은 기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 기뻐받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따라서 찬양은 예배와 마찬가지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부를 때마다 그 은혜로 뜨거워지며, 부를 때마다 감사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받은 복을 가정과 이웃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보내는 물 댄 동산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여러분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 명절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 도 ----- 말은이

▶ 찬 송 ----- 301장 ----- 다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멸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 축 복 ----- 말은이

※ 가족 중 웃어른이나 연장자가 있을 경우,
자녀손들에게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갖습니다.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